문장구조 임시

1.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학습지

과제 : 다음 [탐구 자료]를 [과제 수행표]에 맞게 고쳐 쓰시오.

[탐구 자료]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뻤다.
㉡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려지지 않았다.

[과제 수행표]

자료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	문장 성분간의 호응이 올바르지 않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②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됨.	버스가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③
㉣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함.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시키고 있습니다.…④
㉤	이중 피동을 사용함.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⑤

[2점]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2013 고3 4월 학평(경기)>국어 B형>15번
문항코드 : 13-37-40-315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④	68%	22.5%	2.4%	2.4%	67.9%	4.8%

해설

15.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사용하기
㉣은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사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친 문장에도 '개방시키고 있습니다'로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고 있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 2>

원래의 문장⇒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가) (나)

[2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2013 고3 6월 모평(평가원)>국어 B형>12번
문항코드 : 13-37-60-312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③	88%	3.2%	1.3%	87.5%	2.7%	5.3%

해설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정확하지 않은 문장 표현의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문장 수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가)에서 원래의 문장과 수정한 문장을 비교하면 부사어 '반드시'가 '절대로'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에서 언급한 '부사어와 서술어의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사어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지녀 부정(否定)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사어 '절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등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부정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나)에서는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이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로 수정되었는데, '타인이'라는 주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평등하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을 고려한 수정 결과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의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해당한다. 신정보와 구정보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잘못 쓰는 경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따라 '라고'와 '고'를 잘못 쓰는 경우, 자격과 수단의 의미에 따라 '(으)로서'와 '(으)로써'를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데'와 '-대'를 잘못 쓰는 경우, '아니오'와 '아니요'를 잘못 쓰는 경우, '-든'과 '-던'을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보기 2>에 이러한 수정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다.

3. 다음은 바른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
이중 피동이 사용됨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려졌다. →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렸다.……㉡
중의적 표현이 사용됨	아버지의 그림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은 인기가 많다. ‥㉢
조사를 잘못 사용함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2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출처 : 2013>2013 고3 7월 학평(인천)>국어 B형>15번
문항코드 : 13-37-70-315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②	83%	3.1%	83%	5.3%	4%	4.6%

해설

15. [출제의도]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기

㉠은 접속조사 '과'로 연결된 두 목적어 중 '창작 활동'에 호응하는 서술어(필수성분)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서술어를 넣어야 한다. ㉡의 '불려졌다'는 피동 접미사인 '-리-'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불렸다'로 수정해야 한다. ㉢은 관형격 조사 '의'로 인해 문장이 중의성을 갖게 된 예이다.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하므로 '아버지의 그림'을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 부사격 조사 '-에'는 무정명사와, '-에게'는 유정명사와 결합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 ㉠ ~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2점]

①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②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③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④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⑤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출처 : 2013>고3 9월 모평(평가원)>국어 B형>13번
문항코드 : 13-37-90-313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③	68%	11.3%	11.5%	68.1%	2.5%	6.6%

해설

13. 문장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비문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여전히'와 같은 부사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해결책인지를 드러내는 문장 성분이다. 예를 들어, '그 사태에 대한 해결책' 혹은 '그 사태의 해결책'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에는 '대하지'와 호응하는 '누구에게'의 부사어나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하게 지내기도 한다."에는 '지내기도'와 호응하는 '누구와'의 부사어가 빠져 있다. 라서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④ "선생님께서는 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에는 '존경했다'와 호응하는 '누구를'의 목적어가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⑤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에는 서술어 ‘유학자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5. 다음 연설문의 담화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기부를 통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 마음은 받는 사람에게 희망이,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 기부는 사랑입니다. 기부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십시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른이 되어 또 다른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는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부가 아직 우리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여러분 사이의 성실한 매개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2점]

① ㉠은 ‘기부를 통해 전달한 마음’을 지시하여 앞 문장과의 응집성을 높여 준다.
② ㉡에 ‘한마디로’라는 담화 표지를 넣으면 앞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표현할 것임을 예고할 수 있다.
③ ㉢은 이어지는 문장의 화제가 기부의 특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한다.
④ ㉣을 ‘그렇게’라는 담화 표지로 바꾸면 반복적인 표현을 피할 수 있다.
⑤ ㉤은 앞 문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문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의 이유나 근거임을 드러낸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③	37.04%	42%	8.6%	37%	2.5%	9.9%

해설

㉢은 기부가 나눔을 실천하는 쉬운 방법이라는 점 이외에 다른 특성이 첨가될 것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또’는 첨가의 기능을 하는 담화 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장의 화제가 기부의 특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그’와 같은 지시 관형사는 앞의 내용을 가리키기 때문에, 앞뒤의 문장을 연결하여 응집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② ‘한마디로’와 같은 담화 표지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올 것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④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내용은 앞 문장에 이미 제시되었으므로 지시어로 대치하면 반복적 표현을 피할 수 있다.
⑤ ‘그렇기에’는 앞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의 이유나 근거임을 드러낸다. 즉 기부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유로 들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6. <보기>의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올바른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지난주 우리 동아리는 고아원으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할 일이 많으리라 ㉠미리 예상했지만 손길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았다. 문제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실외에서의 봉사 활동은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실내에서 물품 창고를 청소하기로 했다. 두 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나니 버려야 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졌다. 평소 방 청소도 안 하던 우리에게 창고 정리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청소를 마치고 창고를 둘러보니, 이곳에 아이들이 사용할 물건들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봉사와 우정,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동아리에 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정 방안

ⓐ: ㉠에서 ‘미리’와 ‘예상하다’는 의미가 중복되니까 ‘예상은 했지만’으로 수정한다.
ⓑ: ㉡에서 주어 ‘문제는’과 서술어 ‘어려웠다’가 호응하지 않으니까 서술어를 ‘어려웠다는 점이다’로 수정한다.
ⓒ: ㉢에서 과도한 피동 표현을 피하기 위해 ‘쌓였다’로 수정한다.
ⓓ: ㉣에서 부사어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말과 호응하지 않으니까 ‘일이었다’로 수정한다.
ⓔ: ㉤에서 ‘봉사’와 ‘우정’에 대한 서술어가 없으므로 ‘봉사와 우정을 나눌 수 있고’로 수정한다.

[2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①	60%	60%	12.6%	15.6%	5.9%	5.9%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예상(豫想)’은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둠’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미리’와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의 수정 방안은 올바르다.
㉡에서 ‘문제는 ~ 어려웠다는 점이다.’로 고쳐야 주어와 서술어가 올바르게 호응한다. 따라서 ⓑ의 수정 방안은 올바르다.
㉢에서 ‘쌓여졌다’는 이중 피동 표현이기 때문에 ‘쌓였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의 수정 방안은 올바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에서 부사어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말과 호응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가 옳은 표현이다. 따라서 ⓓ의 수정 방안은 올바르지 않다.
㉤에서 ‘봉사’와 ‘우정’에 대한 서술어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봉사와 우정을 나눌 수 있고’로 고쳐도 여전히 ‘봉사’의 서술어가 없다. ‘봉사를 나누다’는 어색하기 때문이다. ‘봉사를 실천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은 물론’ 정도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 수정 방안은 올바르지 않다.

7. (가)를 (나)로 재구성했을 때, 고려했을 법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가)

<규정집 원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고 매입을 통해 발생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

(나)

<정책 홍보 만화 '생활 속의 세금 상식' 대본>
민원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시면 당연히 사업자 이름으로 된 세금 계산서를 만드실 수 없게 되겠지요? 또 사업을 위해 구입한 원자재 가격에 포함된 세금도 공제받으실 수 없게 돼요.

[2점]

① 구어체에 적합한 종결 표현을 사용한다.
② 민원인을 대상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③ 복잡하게 이어진 문장을 나누어 재구성한다.
④ 어려운 일부 한자어는 쉬운 단어로 교체한다.
⑤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꾼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⑤	35.8%	42%	7.4%	9.9%	4.9%	35.8%

해설

매체의 성격, 예상 독자(청자)에 따라 담화는 그 형식을 적절하게 바꾸게 되며, 담화에 따른 문법적 특성을 지닌다. ⑤에서 지적한 내용은 대개 문장의 적절성을 갖추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가)에서 쓰인 피동 표현 '-게 되-'가 (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① (나)에서는 '민원인의 질문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라는 구어적 상황을 가정하여 담화가 구성되어 '요'와 같은 종결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나)에서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요체의 상대 높임 표현, '-(으)시-'를 통한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가)가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나)의 담당자 답변 문장에서는 주제에 따라 두 문장으로 나누어 재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쓰인 '영위', '교부', '매입', '발생' 등은 주로 법률문과 같은 문장에서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나)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이들 한자어를 고유어나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쓰는 한자어로 교체하였다.

8. <보기>는 바른 문장 쓰기를 위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친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보기

(가) **올바른 조사 사용의 문제**
•이번 일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
⇒ 이번 일의 책임은 학교에게 있다.……㉠
•나는 회장으로서 이번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 나는 회장으로써 이번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나) **올바른 어미 사용의 문제**
•형에게 들었는데 누나가 돌아왔데.
⇒ 형에게 들었는데 누나가 돌아왔대.……㉢
•그는 무슨 일을 하던지 항상 최선을 다한다.
⇒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한다.……㉣

[2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⑤	31.4%	40.7%	10.5%	12.8%	4.7%	31.3%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종결 어미 '-데'와 '-대'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에는 '-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에는 '-대'가 쓰인다. 따라서 "형에게 들었는데 누나가 돌아왔대."가 바른 문장이다.
㉣의 연결 어미 '-던지'와 '-든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에는 '-던지'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는 '-든지'가 쓰인다. 따라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한다."가 바른 문장이다. '-던지'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던지 배탈이 날까 걱정이 되었다."의 용례로 쓰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조사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 등의 유정 명사에만 붙기 때문에 ㉠의 '학교에게'는 잘못된 표현이다.
㉡의 부사격 조사 '(으)로써'와 '(으)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에는 '(으)로써'가,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낼 때에는 '(으)로서'가 쓰인다. 따라서 "나는 회장으로서 이번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가 바른 문장이다.

9. <보기>에서 설명한 언어 현상이 나타난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자리에 착석(着席)하다.'는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이다. '착석(着席)'에 이미 '자리[席]'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다.' 정도로 써도 충분하다. 이런 현상은 흔히 고유어와 한자어를 함께 쓸 때에 발생하는데, 굳이 의미를 중복하여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다듬어 쓰는 것이 좋다.

㉠ 이 문제에 대해 짧은 소견(所見)을 밝히고자 한다.
㉡ 그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난관(難關)에 부딪쳤다.
㉢ 그는 남은 여생(餘生)을 여행을 다니며 보내기로 결심했다.
㉣ 그들은 수많은 시도 끝에 오랜 숙원(宿願)을 이룰 수 있었다.
㉤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지에 미리 답사(踏査)를 다녀왔다.

[2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③	28.18%	44.5%	9.1%	28.2%	13.6%	4.6%

해설

㉡의 '난관(難關)'은 '어려운 고비'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어려운'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어려운 난관'은 중복된 표현의 사례이다.
㉢의 '여생(餘生)'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남은'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남은 여생'은 중복된 표현의 사례이다.
㉣의 '숙원(宿願)'은 '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나 소망'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오랜'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오랜 숙원'은 중복된 표현의 사례이다.
㉠의 '소견(所見)'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짧은 소견'이라고 써도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의 '답사(踏査)'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미리 답사하다'라고 써도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10. <보기>의 ㉠~㉤을 수정한 이유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행복과 기쁨은 동일한 감정은 아니지만 매우 유사한 감정이다. 그래서 ㉠설명하기 (→**그 차이를 설명하기**)매우 어렵다.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이고, 행복은 일정 기간 ㉡지속하는(→**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혹은 기쁨은 외적인 상황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인 반면, 행복은 ㉢성숙한 자신의 가치관(→**자신의 성숙한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외적 상황과 무관한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설명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기쁨과 행복의 차이를 ㉣비단(→**삭제**)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기쁨과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정의해야(→**이루어져야**)한다.

[2점]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어 목적어를 보충하였다.
② ㉡: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피동 표현으로 바꾸었다.
③ ㉢: 중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수식어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④ ㉣: 부사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사어를 삭제하였다.
⑤ ㉤: 앞에서 사용한 단어가 반복되어 다른 단어로 교체하였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②	34.15%	37.8%	34.1%	9.8%	8.5%	9.8%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지속하다'는 타동사로서 '성장을 지속하다'와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반면 '지속되다'는 '지속하다'의 피동 표현으로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약효가 지속되다'와 같이 사용한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지속되다'라는 피동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또한 '지속하다'와 '지속되다'는 모두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설명하다'라는 서술어는 설명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 차이를'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③ '성숙한'이 수식하는 대상이 '자신'인지 '가치관'인지 분명하지 않아 중의성을 띤다. 따라서 수식어인 '성숙한'의 위치를 피수식어인 '가치관' 앞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④ 부사어 '비단'은 서술어 '설명하지는 못한다'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⑤ 주어부와 서술부에 각각 '정의'라는 말이 사용되어 중복된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단어로 교체해야 한다.

11. <보기>의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1과 학생 2가 교실 뒤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학생 1: 이제 ㉠그거 돌려줄래?
학생 2: ㉡그거?
학생 1: 며칠 전 내가 네게 빌려 준 필통 말이야.
학생 2: 아, 미안. (자기의 자리를 가리키며) 사실 잃어버려서 ㉢저거로 다시 샀어.
학생 1: 그랬어? 그럴 필요까진 없는데.
학생 2: (필통을 가져와서) ㉣이거 네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랑 같은 거지? 잃어버려 미안해.

[2점]

① 대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은 '며칠 전 학생 1이 학생 2에게 빌려 준 필통'을 가리키는군.
② ㉡을 말할 때 '학생 2'는 '학생 1'이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군.
③ ㉢은 ㉠과 완전히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과 동일한 종류의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군.
④ ㉢과 ㉣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학생 1'과 '학생 2' 사이의 거리 변화에 따라 표현을 달리 사용하였군.
⑤ ㉣은 ㉠과 달리 대화 상황에서 '학생 1'과 '학생 2'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④	32.48%	34.2%	8.5%	17.9%	32.5%	6.9%

해설

지시 표현의 분석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 ㉣은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의 필통을 잃어버려서 새롭게 산 필통을 말한다. 그러나 '저거', '이거'로 달리 표현한 것은 '학생 1'과 '학생 2' 사이의 거리 변화 때문이 아니라 대상인 '필통'과 '학생 2' 사이의 거리 변화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①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를 통해 ㉠은 '며칠 전 학생 1이 학생 2에게 빌려 준 필통'임을 알 수 있다.
② '그거?'라고 '학생 2'가 물어보는 것은 '학생 1'이 언급한 '그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학생 2'는 '학생 1'이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학생 2'가 '학생 1'이 빌려 준 필통을 잃어버려 새로 산 것이므로, 동일한 대상이 아닌, 동일한 종류의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⑤ '학생 2'가 필통을 가져와서 말하고 있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의 필통은 '학생 1'과 '학생 2'가 현재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라) 효과적인 담화 구성
① 담화의 표현 원리를 탐구하고 담화를 효과적으로 구성한다.

12. <보기>의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할 때, 묶음표의 쓰임이 바르지 <u>못한</u> 것은?

보기

Ⅳ. 묶음표
1. 소괄호 ( )
-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쓴다.
- 빈자리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2. 중괄호 { }
-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쓴다.

3. 대괄호 [ ]
-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

[2점]

① 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② 춘원(6·25 때 납북)의 출신지는 정주였다.
③ 그녀의 나이(年歲) 60세 때 그 일이 터졌다.
④ 니체[독일(獨逸)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⑤ '너{마저, 조차, 까지, 도}' 표현은 모두 가능하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부호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③	36.25%	41.3%	6.3%	36.3%	10%	6.1%

해설

문장 부호 규정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문장에서 '나이'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의미하는 말로, 묶음표 안에 '연세(年歲)'라고 병기해 주고 있다. 즉, 묶음표 안의 말인 '연세(年歲)'와 바깥 말인 '나이'의 음이 다르므로 소괄호가 아닌 대괄호로 묶어야 옳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의 소괄호는 '3·1 운동'의 연대를 넣기 위해 쓴 것이므로 바르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해 쓴 것이므로 바르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의 대괄호는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어서 쓴 것이므로 바르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의 중괄호는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이기 위해 쓴 것이므로 바르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012년 10월에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문장 부호 규정 개정안은 '소괄호'를 '괄호', '대괄호'를 '각괄호'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다) 정확한 문장 표현
① 정확한 문장 구성 방법을 이해하고 담화 표지 및 문장 부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13. 수업 시간에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을 교정하는 학습 활동을 하였다. <u>잘못</u> 교정한 것은?

[2점]

① 우리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어. → 우리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
② 더욱 큰 문제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게임 중독 때문이다. → 더욱 큰 문제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게임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
③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형극의 가시밭길을 걸어 왔습니다. →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형극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④ 개인은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는 개인에 봉사해야 한다. → 개인은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는 개인에게 봉사해야 한다.
⑤ 법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구속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다. → 법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②	35.9%	43.6%	35.9%	9%	3.8%	7.7%

해설

어법에 맞게 표현하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더욱 큰 문제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게임 중독 때문이다.'는 '문제는'과 호응하는 적절한 서술어가 없고 '때문이다'와 호응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없으므로 어법에 어긋난다. '더욱 큰 문제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게임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말은 '-ㄹ는지'이다. '-ㄹ런지'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다. '-ㄹ는지'와 '-ㄹ런지', '-ㄹ른지' 중에서 '-ㄹ는지'가 널리 쓰이므로 '-ㄹ는지'를 표준어로 삼는다.
③ '형극'이 '나무의 온갖 가시'란 뜻이므로, 중복된 표현을 삭제한다.
④ 유정물 뒤에는 '에게'가 붙고, 무정물 뒤에는 '에'가 붙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구속하다'는 '자유'와만 호응하므로 '권리'와 호응하는 '제한하고'를 삽입해야 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문법 II ⑴ 국어와 규범 (다) 정확한 문장 표현
② 잘못된 어법이나 번역체 등에 의한 문장의 오용 현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자율적으로 교정한다.

14.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제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예)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예) ⇒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나) 중의적인 문장의 문제
• 접속 표현에 의한 것
(예) 민수와 진희는 결혼을 했다. [둘이 부부인 경우]
(예) ⇒ 민수는 진희와 결혼을 했다.…㉢
• 수식 구조에 의한 것
(예) 귀여운 영희 친구가 놀러 왔다. [친구가 귀여운 경우]
(예) ⇒ 귀여운 영희의 친구가 놀러 왔다.…㉣

[2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①	72.87%	72.9%	9.3%	9.3%	3.9%	4.6%

해설

[정답찾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사례에서, '~점은'이라는 주어는 '~점(것)이다.'라는 서술어와 호응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은 바르게 고친 것이다.
한편, 접속 조사 '와/과'에 의해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민수와 진희는 결혼을 했다.'라는 문장은 민수와 진희 두 사람이 부부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민수와 진희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사를 사용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는 ~와 결혼을 했다.'라는 문장은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게 표현되었으므로 ㉢은 적절하게 고친 문장이다.
[유형분석노트]

문제 유형 파악	이 문항은 <정확한 문장 표현> 유형과 관련하여 국어 문장의 구조, 문법 범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장 표현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즉, 정확한 문장 표현과 관련하여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의적인 문장을 바르게 고쳐 보는 문제이다.
▼	
담화 분석 활동	지문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관한 학습 자료이다. (가)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제를 다룬 자료이고, (나)는 중의적인 문장의 문제를 다룬 자료이다.
▼	
유형 해결 전략	국어 문장의 구조,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고쳐쓰기 활동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우선 발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어 문장의 구조,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문장의 오용 현상을 판단하도록 한다. ㉡의 '비단'이라는 부사어는 '아니다, 않다' 등의 부정적 서술어와 호응하는 단어인데, 이 문장은 긍정문이므로 적절하게 호응되지 않았다. ㉣의 '귀여운 영희 친구'를 '귀여운 영희의 친구'로 고쳐 쓴 것도 '귀여운' 대상이 영희인지, 친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는 수식 구조의 모호함에 의해 중의성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희의 귀여운 친구가 놀러 왔다.'처럼 피수식어 바로 앞으로 수식어를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15. 어문 규정에 맞게 문장 부호를 사용한 용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ㄱ. 가운뎃점(·):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 명사·대명사·수사를 합하여 체언이라고 한다.…①
ㄴ. 빗금(/):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일 때 쓴다.
→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②
ㄷ. 반점(,):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 쓴다.
→ 여름에는 바다에서 휴가를 즐겼고,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③
ㄹ. 대괄호([ ]):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 나이[年歲], 손발[手足]…④
ㅁ. 줄표(–):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을 넣을 때 쓴다.
→ 그는 네 살 때 – 보통 한글도 모를 나이에 – 천자문을 뗐다.…⑤

[2점]

① ②
③ ④
⑤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부호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③	35.48%	40.9%	10.8%	35.5%	7.5%	5.3%

해설

문장 부호 활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여름에는 바다에서 휴가를 즐겼고,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라는 문장은 반점(,)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의 용례로는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가 적절하다.

16. 학급 누리집에 게시된 글들 중에서 <보기>의 사례를 찾아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을 이루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 된다. 대표적으로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서술어와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불필요한 성분이 사용된 경우,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점]

① ㉠: 나는 수학을, 내 짝은 국어를 좋아한다.
② ㉡: 우리는 가끔 가까운 친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한다.
③ ㉢: 나는 오늘 체육 대회에서 우리 반의 참된 진가를 발견했다.
④ ㉣: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수업 시간만이라도 좀 조용히 공부하자.
⑤ ㉤: 얘들아, 이번 체육 대회에서 반드시 2반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①	58.39%	58.4%	8%	20.4%	6.6%	6.6%

해설

문장 성분의 역할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수학을, 내 짝은 국어를 좋아한다.'는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내 짝은 국어를 좋아한다.'에서 동일한 서술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 절의 '좋아하고'를 생략한 것인데, 이는 꼭 필요하지 않은 서술어의 자연스러운 생략이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의 예로는 '수학여행 계획과 중간고사를 잘 치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치르다'는 '중간고사를'이라는 목적어와 호응한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수학여행 계획'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따라서 '수학여행 계획을 잘 세우고 중간고사를 잘 치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처럼 써야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이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우리는 가끔 가까운 친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구에게 실망하기도 한다.'처럼 써야 한다. '실망하다'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필요한데도 부적절하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진가'라는 말이 '참된 값어치'라는 뜻이므로, '참된 진가'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관형어가 사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의 예로 적절하다.
④ 서술어가 '하고 싶은 말은'과 호응하도록 '~ 조용히 공부하자는 것이다.'로 고쳐야 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⑤ '안 된다'와 호응하지 않는 부사어 '반드시'를 '절대로', '결코' 등으로 고쳐야 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17. (가)를 참고하여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담화 표지는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글에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장치이다. 담화 표지에는 접속어, 지시어, 단어 반복 등이 있는데, 글쓴이는 이러한 담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예고, 강조, 정리, 인과, 예시, 열거, 비교, 대조 등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나) ㉠이번에는 암석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선 역암은 자갈 사이에 모래나 흙이 채워진 암석인데, 알갱이가 굵고 무거워서 멀리까지 이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역암이 발견되는 장소는 육지와 가까운 선상지나 하천, 해안이었다. 빙퇴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빙퇴석은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질들이 주변의 토양과 섞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빙퇴석의 겉에 나 있는 긁힌 자국을 보면 빙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므로, ㉣그것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암석들을 연구하면 지층이 만들어지던 시기의 환경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점]

① ㉠: 새로운 화제가 제시될 것임을 예고하는 담화 표지이군.
② ㉡: 열거되는 여러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내용임을 알려 주는군.
③ ㉢: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담화 표지군.
④ ㉣: 앞에 나오는 '응회암'을 지시하는 담화 표지군.
⑤ ㉤: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반복하여 강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말이야.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⑤	36.14%	42.2%	4.8%	12%	4.8%	36.2%

해설

담화 표지의 기능에 대한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은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서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표시해 주는 담화 표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번에는'은 지금까지의 화제와는 다른 화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알려 주는 담화 표지이다.
② '우선'은 '어떤 일에 앞서서'라는 뜻으로 여러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알려 주는 담화 표지이다.
③ '따라서'는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인데, 여기에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담화 표지로 쓰이고 있다.
④ '그것'은 앞에서 제시된 '응회암'을 지시하는 말인데, 이러한 지시어를 사용하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글의 응집성을 갖추게 된다.

18. <보기>의 대화를 통해 일상 언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생: 여보세요.
형: 형이야.
동생: 응, 도서관 간다더니 갑자기 웬 전화?
형: ㉠어, 지금 도서관이야. 어, 음, 형이 과학 책을 두고 왔어. ㉡도서관으로 책상 위에 있는 과학 책 좀.
동생: ㉢뭐? 나도 공부해. 바빠서 안 돼. 형이 가져가.
형: ㉣너는 동생이 돼서, 형도 못 도와주냐? ㉤하여튼 왕재수야. 그래 내가 간다. 가.

[2점]

① ㉠: 일상 언어에서는 군말이 사용될 수 있군.
② ㉡: 일상 언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문장 성분이 생략돼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군.
③ ㉢: 일상 언어에서는 홑문장 위주의 간단한 문장이 사용될 수 있군.
④ ㉣: 일상 언어에서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사용해도 의사소통이 되는군.
⑤ ㉤: 일상 언어에서는 비속어가 사용되기도 하는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④	32.1%	48.1%	6.2%	11.1%	32.1%	2.5%

해설

일상 언어의 특징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을 갖추고 있으며 호응도 잘 되고 있으므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다. 그러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을 사용해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어'는 없어도 의사소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군말이다. 일상 언어에서는 '어'나 '음' 등의 군말이 잘 사용된다.
② 문장에서 서술어는 생략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의 경우에는 서술어 '갖다 줘'가 생략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통해 일상 언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문장 성분이 생략될 수 있으며,
문장 성분이 생략돼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에서는 3개의 짧은 홑문장 '나도 공부해.', '바빠서 안 돼.', '형이 가져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 언어에서는 이렇게 홑문장 위주의 간단한 문장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대화가 진행되기도 한다.
⑤ ㉤에서 '왕재수'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비속어이다. 일상 언어에서는 비속어가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 <보기>를 자료로 국어의 담화 표지 및 문장 부호에 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언젠가부터 문학 시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각종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고등학교 문학 교육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문학 독서에 지루함과 거북함을 느끼는 이유는 영상 언어 인지 코드보다 문자 언어 인지 코드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세대이기 때문이다. 어떤 형식의 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과 의식, 그리고 사유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영상을 통한 문학 수업'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문자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필요한
㉣문제의식은, 전자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전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문학 교육의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2점]

① 문맥으로 볼 때, ㉠의 바로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를 넣으면 앞 문장과의 의미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겠군.
② ㉡은 근거와 주장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접속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에 사용된 작은따옴표는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④ ㉣에서 반점의 사용은, 문장의 중의성 발생을 차단하고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군.
⑤ 단어의 중복 사용을 피하려면 ㉤을 '그들'이라는 지시어로 바꾸어도 되겠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부호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①	55.74%	55.7%	7.4%	15.6%	10.7%	10.6%

해설

담화 표지 및 문장 부호의 기능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바로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를 넣으면 내용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을 포함한 문장이 내용상 바로 앞 문장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 문장의 끝에 있는 '때문이다'는 '이유는'과 호응하는 말이라서, 그 문장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 추가되어야 할 문장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의 앞은 언어의 형식이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고, ㉡의 뒤는 영상을 통해 문학을 접하는 것이 문자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은 근거와 그에 따른 주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영화 같은 각종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를 강조하여 가리키기 위해, ㉢에서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에서 반점을 사용함으로써, '문제의식'이 '전자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고 읽힐 수도 있는 중의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문제의식은'이 '물음이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임을 정확히 해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⑤ 바로 앞 문장에도 '학생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은 '그들'이라는 지시어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20. 다음은 잘못된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예)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형이 인기 있는 경우)
(예) ⇒ 누구나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①
• 번역체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예) 사랑하는 처자식을 가진 가장은 어깨가 무거웠다.
(예) ⇒ 사랑하는 처자식을 둔 가장은 어깨가 무거웠다.…②
• 이중 피동을 사용하는 경우
(예) 올해 안에 한강에 새로운 다리가 놓여질 예정이다.
(예) ⇒ 올해 안에 한강에 새로운 다리가 놓일 예정이다.…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예) 문제는 그가 지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립니다.
(예) ⇒ 문제는 그가 지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④
• 지시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예) (길 건너편 남자를 가리키며) 네가 어제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예) ⇒ 네가 어제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⑤

[2점]

① ② ③ ④ 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④	35.29%	41.2%	3.5%	15.3%	35.3%	4.7%

해설

고쳐쓰기의 적절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예문은 주어 '문제는'과 서술어 '부립니다'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다. 이를 고친 '문제는 ~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술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다. 주술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문제는 ~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의성이 있는 예문을 형이 인기가 있는 경우로 의미를 한정하여 바르게 고쳐 쓰고 있다.
② 예문에서 사용된 '가진'은 영어의 'have'를 번역하여 그대로 사용한 말로, 가장이 처자식을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자식을 가진'은 '처자식을 둔' 또는 '처자식이 있는'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③ 예문에서 사용된 '놓여질'은 피동사 '놓이다'에 추가로 '~어 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이므로 '놓일'로 고치는 것이 옳다.
⑤ 예문에서 사용된 '그'는 청자에게 가까이 있거나 청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지시되는 대상이 화자와 청자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눈에 보일 때는 '저'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21. <보기>는 올바른 문장을 고르는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 다음 중 맞는 문장에는 ○ 표, 틀린 문장에는 ×표를 해 보자.
㉠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치수는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치수는 없으십니다.(×)
㉡ 이제 문제점이 확실히 밝아졌다.(○)
이제 문제점이 확실히 밝혀졌다.(×)
㉢ 이번 일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겠어요.(○)
이번 일에 대해 정부에게 항의하겠어요.(×)
㉣ 저희 팀은 내일 아침 10시에 대책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 팀은 내일 아침 10시에 대책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②	37.23%	37.2%	37.2%	18.1%	5.3%	2.2%

해설

정확한 문장 표현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통하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존대'에는 '눈이 크시다', '걱정이 많으시다', '선생님,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처럼 '-시-'를 사용한다. 그러나 '치수가 없으십니다.'처럼 '-시-'를 남용하는 것은 바른 높임법이 아니다. '치수'는 청자의 소유물 혹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치수가 없습니다.'처럼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 따라서 ㉠은 적절하게 판단한 결과이다. 그리고 '정부'는 유정물이 아니므로 '정부에게 항의하다.'가 아니라 '정부에 항의하다.'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도 적절히 판단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문제점이 밝혀졌다.'에서 '밝혀졌다'는 잘못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밝-(어간) + -히-(사동 접미사) + -어지-(피동 표현) + -었-(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 -다(종결 어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 적절한 판단 결과가 될 수 없다. 또 '회의를 갖다.'라는 표현은 영어식 표현이므로 '회의를 하다.'처럼 우리말의 표현 방법대로 쓰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다.

22. 다음 중 ㄱ~ㅁ을 의미 중복이 없도록 다듬은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ㄱ. 서울역전(驛前) 앞 시계탑에서 만나자.
ㄴ. 우리는 당신의 그 말에 깊이 공감(共感)을 느꼈다.
ㄷ. 청중께서는 자리에 착석(着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ㄹ. 공기를 자주 환기(換氣)해 주어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ㅁ. 승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적(決死的)으로 싸우자.

[2점]

① ㄱ : 서울역 앞 시계탑에서 만나자.
② ㄴ : 우리는 당신의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③ ㄷ : 청중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④ ㄹ : 자주 환기해 주어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⑤ ㅁ : 승리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싸우자.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⑤	42.67%	40%	5.3%	5.3%	6.7%	42.7%

해설

의미 중복 표현 해소 방안의 적절성 평가

다음 중 ㄱ~ㅁ을 의미 중복이 없도록 다듬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의미 중복 표현에서 중복되는 성분을 바르게 삭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함께 쓰일 때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ㅁ : 승리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싸우자.
→ '결사적(決死的)'의 '결사'는 '죽음을 결심하다.'라는 뜻으로, '죽음을 각오하다.'와 그 의미가 중복되므로 '승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혹은 '승리를 위해 결사적으로 싸우자.'로 바꾸는 것이 좋다. '죽음을 각오하고'를 '죽음을 무릅쓰고'로 바꾸어도 의미 중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 서울역 앞 시계탑에서 만나자.
→ '전(前)'과 '앞'의 의미가 동일하므로 중복되는 의미인 '전'을 삭제하고 '서울역 앞 시계탑에서 만나자.'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② ㄴ : 우리는 당신의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 '공감'의 '감(感)'은 '느끼다'라는 의미이므로 '우리는 당신의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정도로 고쳐야 의미 중복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③ ㄷ : 청중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착석(着席)'은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로 '착석'에 '자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중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④ ㄹ : 자주 환기해 주어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 '환기(換氣)'와 '공기를 바꾸다'는 의미가 동일하므로 '자주 환기해 주어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

힌트

고유어와 한자어 간에 의미 중복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23. 밑줄 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점]

① 나는 요즘 시험 보느라 여간 힘들다.
②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이겨 내야 한다.
③ 학생은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④ 설령 이번 일은 실패했지만 실망은 하지 마라.
⑤ 면접 장소에는 절대로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③	41.18%	39.7%	8.8%	41.2%	4.4%	5.9%

해설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

밑줄 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 문제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성분 호응에 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특정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그 관계가 매우 고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해당 부사어가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학생은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모름지기'는 '~해야 한다'와 호응하는 부사어이다. 따라서 '학생은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요즘 시험 보느라 여간 힘들다.
→ '여간'은 '~지 않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
②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이겨 내야 한다.
→ '결코'는 '~수 없다/~아니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
④ 설령 이번 일은 실패했지만 실망은 하지 마라.
→ '설령'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더라도/~ㄹ지라도'와 호응한다.
⑤ 면접 장소에는 절대로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
→ '절대로'는 '~지 마라/~수 없다/~아니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주로 호응한다.

힌트

'여간, 결코, 절대로'는 부정 표현과 호응되는 부사어이다.

24. 다음 문장들을 어법에 맞게 고칠 때,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ㄱ. 우리는 모두 그분을 존경했고, 그분 또한 아끼셨다.
ㄴ. 그녀는 나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별의 아픔을 주기도 했다.

[2점]

① 중복되는 의미 표현이 있는지 검토한다.
② 잘못 쓰인 사동 표현이 있는지 검토한다.
③ 과도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검토한다.
④ 중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모두 있는지 검토한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⑤	42.47%	39.7%	8.2%	6.8%	2.7%	42.6%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해설

문장 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다음 문장들을 어법에 맞게 고칠 때,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들이 문법적이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비문을 만드는 다양한 요인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제시된 문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모두 있는지 검토한다.
→ ㄱ과 ㄴ에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다. ㄱ에는 서술어 '아끼셨다'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 '우리를'이, ㄴ에는 서술어 '주다'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 '나에게'가 빠져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복되는 의미 표현이 있는지 검토한다.
→ ㄱ과 ㄴ에 중복되는 의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잘못 쓰인 사동 표현이 있는지 검토한다.
→ ㄱ과 ㄴ에 잘못된 사동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과도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검토한다.
→ ㄱ과 ㄴ에 과도한 피동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중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 ㄱ과 ㄴ은 모두 중의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힌트

ㄱ에는 목적어 '우리를'이, ㄴ에는 부사어 '나에게'가 빠져 있다.

25. 다음 ㄱ~ㅂ 중,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ㄴ.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ㄷ. 철수·영희, 민호·혜지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했다.
ㄹ. 나이(年齡)가 18세 미만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ㅁ. 그는 우리가 잘해야 해, 라고 말한 후 내 등을 두드렸다.
ㅂ.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합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2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ㅂ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부호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①	52.71%	52.7%	17.1%	20.2%	4.7%	5.3%

해설

문장 부호 사용의 적절성 평가

다음 ㄱ~ㅂ 중, 문장 부호를 바르게 사용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에서 문장 부호가 바르게 쓰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여러 문장 부호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ㄱ, ㄴ, ㄷ
ㄱ.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물음표를 쓴다.
ㄴ.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에는 소괄호를 쓴다.
ㄷ. 철수·영희, 민호·혜지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했다.
→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ㄹ, ㅁ, ㅂ
ㄹ. 나이(年齡)가 18세 미만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괄호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는 대괄호([ ])를 써야 한다.
→ (예) 나이[年齡]가 18세 미만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ㅁ. 그는 우리가 잘해야 해, 라고 말한 후 내 등을 두드렸다.
→ 말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 (예) 그는 "우리가 잘해야 해."라고 말한 후 내 등을 두드렸다.)
ㅂ.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합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 큰따옴표(" ") 속에 다시 인용하는 말을 쓸 때에는 작은따옴표(' ') 안에 써야 한다.
→ (예)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합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26. 다음 밑줄 친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방안과 그 결과가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제 피해자의 친구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말해 주고 있었다.

	수정 방안	수정 결과
①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제거하여 간결하게 표현한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②	문장의 접속 표현을 의미에 맞게끔 고친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③	중의적인 표현을 없애기 위해 수식하는 말을 넣어 준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④	의미가 모호한 단어 대신 좀 더 명확한 단어로 바꾼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⑤	서술어의 자릿수에 맞게 필요한 문장 성분을 보충한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2점]

① ②
③ ④
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⑤	39.24%	38%	7.6%	12.7%	2.5%	39.2%

해설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다음 밑줄 친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방안과 그 결과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문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시된 문장이 비문인 이유를 파악한 후 그것을 올바로 고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된 문장이 어떤 문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수정 방안) 서술어의 자릿수에 맞게 필요한 문장 성분을 보충한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제시된 문장에서 '아니라는'의 '아니-'는 주어 외에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인데 보어를 빠뜨림으로써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에 맞게 보어를 채우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정 방안)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제거하여 간결하게 표현한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간결한 표현 여부는 이 문장의 문제점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수정 결과 또한 간결하게 표현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수정 방안) 문장의 접속 표현을 의미에 맞게끔 고친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이 문장은 접속 표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수정 결과 역시 그 이전과 비교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정 방안) 중의적인 표현을 없애기 위해 수식하는 말을 넣어 준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이 문장은 중의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수정 결과도 중의성 해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수정 방안) 의미가 모호한 단어 대신 좀 더 명확한 단어로 바꾼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이 문장에는 의미가 모호한 단어가 없으며 수정 결과도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7. 다음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다. 성격에 따라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ㄱ. 우리 회사는 규정 속도 준수와 추월을 하지 않겠습니다.
ㄴ. 내 친구처럼 독특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ㄷ. 공공장소에서는 휴지나 침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된다.

[2점]

① 중의적 해석 : ㄱ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ㄴ, ㄷ
② 중의적 해석 : ㄱ, ㄴ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ㄷ
③ 중의적 해석 : ㄴ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ㄱ, ㄷ
④ 중의적 해석 : ㄴ, ㄷ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ㄱ
⑤ 중의적 해석 : ㄷ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ㄱ, ㄴ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③	34.48%	47.1%	9.2%	34.5%	5.7%	3.5%

해설

비문의 유형 분류

다음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다. 성격에 따라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이 문제는 비문들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비문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 그 원인을 잘 알고 같은 원인에 의한 것들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중의적 해석 : ㄴ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ㄱ, ㄷ

→ ㄱ은 '규정 속도 준수'와 '하지 않겠습니다'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ㄴ은 '내 친구'가 독특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독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중의적 문장이다. ㄷ은 '휴지'와 '함부로 뱉어서는'이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중의적 해석에는 ㄴ,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에는 ㄱ, ㄷ이 속해야 올바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의적 해석 : ㄱ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ㄴ, ㄷ

→ ㄱ은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ㄴ은 중의적 해석으로 분류해야 한다.

② 중의적 해석 : ㄱ, ㄴ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ㄷ

→ ㄱ은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으로 분류해야 한다.

④ 중의적 해석 : ㄴ, ㄷ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ㄱ

→ ㄷ은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으로 분류해야 한다.

⑤ 중의적 해석 : ㄷ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 ㄱ, ㄴ

→ ㄷ은 문장 성분의 잘못된 호응, ㄴ은 중의적 해석으로 분류해야 한다.

28. <보기>는 반점에 대한 문장 부호 규정의 일부이다. ㄱ~ㅁ의 예를 잘못 보인 것은?

보기

ㄱ. 도치된 문장에 쓴다.
ㄴ.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ㄷ.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ㄹ.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ㅁ. 되풀이를 피하기 위해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2점]

① ㄱ : 민수는 축구를, 영수는 야구를 좋아한다.
② ㄴ :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③ ㄷ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④ ㄹ : 키가 큰, 할아버지의 손자는 농구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⑤ ㅁ : 우리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부호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66.1%	66.1%	4.2%	16.1%	8.5%	5.1%

해설

문장 부호의 쓰임 평가

<보기>는 반점에 대한 문장 부호 규정의 일부이다. ㄱ~ㅁ의 예를 잘못 보인 것은?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 부호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보기>에 제시된 반점의 문장 부호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ㄱ : 민수는 축구를, 영수는 야구를 좋아한다.
→ 도치된 문장을 표시하기 위해 반점을 쓴 예문이 아니라, '좋아한다'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점을 쓴 예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ㄴ :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같은 자격으로 열거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반점을 쓴 예문이다.
③ ㄷ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가 짝을 이루면서 구별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반점을 쓴 예문이다.
④ ㄹ : 키가 큰, 할아버지의 손자는 농구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 '키가 큰'이 바로 다음 말인 '할아버지'를 꾸미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 반점을 쓴 예문이다.
⑤ ㅁ : 우리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 '~할 예정이다'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점을 쓴 예문이다.

29. 다음 대화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영수 : 저번에 도와줬던 거 정말 고마웠어.
철호 : 뭘요. 크게 보탬도 안 된 거 같은데요.
영수 : 아니.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어. 그래서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어.
철호 : 에이, 참. 안 그래도 되는데.
영수 : 변변치 않아. 내 마음을 봐서 받아 줬으면 해.
철호 : 그럼 잘 받을게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수 : 고맙다. 너도 마찬가지야.

[2점]

①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 지키고 있다.
② 원래 형태를 줄인 형태가 사용되었다.
③ 상대방에 대한 호칭어는 쓰이지 않았다.
④ 서술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쓰였다.
⑤ 높임 표현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①	48.15%	48.1%	8.1%	14.8%	15.6%	13.4%

해설

담화의 구어적 특징 파악

다음 대화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이 문제는 일상적인 대화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된 선택지를 대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 지키고 있다.
→ 대화문을 보면 목적어나 주어처럼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원래 형태를 줄인 형태가 사용되었다.
→ 대화문을 보면 '줬던(주었던), 뭘요(무엇을요)' 등과 같이 원래 형태를 줄인 형태가 쓰이고 있다.
③ 상대방에 대한 호칭어는 쓰이지 않았다.
→ 호칭어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인데, 이 대화문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④ 서술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쓰였다.
→ 이 대화문에서는 '아니.', '에이, 참.'과 같이 서술어가 없는 문장이 나타나고 있다.
⑤ 높임 표현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 철호는 영수에게 대체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 대사에서는 높임 표현을 생략하고 있어 높임 표현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30. <보기>는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문장을 고른 것은?

보기

■ 어법에 어긋난 문장
• 문장 성분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
[예] 우리들의 의견은 앞으로 학교 위생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우리들의 의견은 앞으로 학교 위생 문제에 관심을 보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
……㉠
• 이중 피동의 사용
[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
•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쓰임
[예] 우리 학교는 면학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학교는 면학 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 문장 성분의 생략
[예]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2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B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④	33.33%	37.6%	5.4%	17.2%	33.3%	6.5%

해설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확인 1] 이중 피동의 사용과 고쳐쓰기
㉡의 예문에서 '생각되어집니다'는 '-되다'와 '-어지다'와 같은 피동 표현이 중복된 표현이다. 따라서 '생각됩니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하나로 고쳐 써 주어야 한다.
[확인 2] 생략된 문장 성분 추가하기
㉣의 예문에서 '모색'은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대안'은 모색의 대상이 되지만, '문제점'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서술어인 '진단하다'를 추가하여 문장을 고쳐 쓸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확인]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여부
㉠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의견은 ~ 관심을 갖자는 데 뜻을 모았다.'로 호응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의견은 ~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와 같이 고쳐 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 의미상 호응 여부
'조장'은 '일이나 경향이 더 심해지도록 도움'의 뜻으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 '면학 분위기'는 '조장'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성'과 같은 단어로 교체하여 의미상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조절'은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의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1. <보기>의 문장 부호 규정을 참고할 때, '쉼표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것은?

보기

쉼표(,)의 쓰임
• 도치된 문장에 쓴다.
• 수의 자릿점을 나열할 때에 쓴다.
•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2점]

① 8, 15 광복절은 내 생일이다.
②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님.
③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④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⑤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미덕이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문장 부호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B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①	60.77%	60.8%	10.8%	11.5%	11.5%	5.4%

해설

문장 부호의 적절성 평가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확인] 8, 15 광복절은 내 생일이다.
'8·15'는 수의 자릿점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쉼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쓰는 기호는 가운뎃점(·)이므로, '8·15'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14,314(만사천삼백십사)'와 같이 세 자리마다 수의 자릿점을 나열할 때 쓰는 기호가 쉼표(,)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확인]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님.
'어머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에서 '어머님'을 뒤쪽으로 도치시켜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님'이라고 썼기 때문에 쉼표가 와야 한다.
③[확인]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닭과 지네'가 하나의 짝이고, '개와 고양이'가 하나의 짝이므로,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와야 한다.
④[확인]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성질 급한'이 바로 다음 말인 '철수'를 꾸미지 않고 '누이동생'을 꾸미기 때문에 쉼표가 와야 한다.
⑤[확인]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미덕이다.
'근면', '검소', '협동'은 같은 자격의 어구이고, 이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쉼표가 와야 한다.

32. <보기>의 ㉠과 ㉡ 모두에 나타난 어법상의 오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보기

• 이번 축구 친선 경기에서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 내가 내린 결론은 학교한테 그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2점]

①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조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③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④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B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②	31.36%	45.8%	31.4%	11.9%	5.1%	5.8%

해설

문장의 오용 현상 탐구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확인] 조사의 바르지 않은 사용
㉠과 ㉡은 모두 부사격 조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즉, ㉠의 '에게', ㉡의 '한테'는 모두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사용되므로, ㉠의 '일본에게'는 '일본에'로, ㉡의 '학교한테'는 '학교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불필요한 중복 표현
㉠과 ㉡에는 불필요한 중복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③[확인]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은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④[확인]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과 ㉡에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확인]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인 '주어'를 생략하고 있다.

33. 다음은 어법에 어긋난 문장이다. 그 이유와 수정 결과가 모두 적절한 것은?

기상청에서는 곧 장마가 끝날 것으로 미리 예상했다.		
	이유	수정 결과
①	번역체 표현을 사용함.	기상청에서는 곧 장마가 끝난다고 발표했다.
②	조사를 잘못 사용함.	기상청에서는 곧 장마가 끝날 것을 미리 예상했다.
③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사용함.	기상청에서는 곧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④	문장 성분이 호응되지 않음.	기상청에서는 이제 장마가 끝날 것으로 미리 예상했다.
⑤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기상청에서는 곧 장마가 끝날 것으로 미리 정확하게 예상했다.

[2점]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정확한 문장 >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국어B

정답	정답률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③	50%	25%	25%	50%	0%	0%

해설

문장의 오류 바로 잡기
[해설] '예상하다'는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다.'라는 뜻으로 의미 속에 '미리'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 따라서 '미리 예상했다.'는 것은 의미 중복 표현으로 '미리'를 삭제해야 한다.

시험지에 관한 저작권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